미얀마 지원·협동조합 설립…대사회 영역 확대

광폭 행보 나선 전국비구니회 '눈길'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7월 20일 창립 총회 열고
'푸르니 협동조합' 설립해
미얀마 위한 지원활동도
8월 28일 평화 기원법회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지난 7월 20일 '푸르니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전국비구니회 최초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대사회 활동 영역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제12대 집행부 출범 이후 1년여간 내부 운영규칙과 법령 제개정을 통한 공적시스템 구축을 통한 내실 강화에 주력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비구니 스님들의 역량 결집을 토대로 대사회적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다. 푸르니 협동조합 설립과 국제사회 이슈 대응, 환경 문제에 대한 실천적 관심 등이 대표적이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지난 7월 20일 '푸르니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전국비구니회 최초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창립총회에는 발기인 대표로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과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 사업부장 덕환 스님, 감사 현진 스님 등이 참석했다. 협동조합 설립은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복지 기금 마련 등 선순환구조 확립을 위해 추진됐으며, 올초 총회와 종무회의를 거쳐 사업부 주도로 본격화 됐다.

푸르니 사회적협동조합의 핵심사업은 불교 전통 식문화의 대중화 및 사회적 회향이다. 올바른 식문화와 전통문화를 계승·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산하기관인 사찰음식연구소(소장 선재)를 다목적센터로 확대하고, 사찰음식 교육과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사회복지 기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사찰음식을 통한 대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사찰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문화를 형성해 나간다는 취지다.

조합원은 크게 푸르니 협동조합의 식문화 및 전통문화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 조합원과 소비자 조합원, 직원 조합원과 자원봉사자 조합원, 후원자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지역사회 내 약선김치 나눔, 올 4월부터 사업부가 주관한 사찰 장아찌 및 오신채가 없는 밑반찬의 생산·판매도 협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푸르니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찰을 중심으로 사회사업과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 시도"라며 "사찰음식의 전통을 담은 대중화와 공헌 등 수익 창출을 통한 사회적 회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 이슈인 미얀마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실천행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국비구니회는 올 초 군부쿠데타로 신음하고 있는 미얀마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미얀마 민주항쟁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미얀마 민주화와 평화를 위한 기도법회를 봉행해 왔으며 성금을 모아 재한 미얀마유학생을 위한 '민주평화 기원 장학금' 등 미얀마 관련 지원에도 앞장섰다. 8월 28일 오후 2시에는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미얀마 민주평화 기원법회'를 재차 봉행할 계획이다.

국제개발협력단체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동남아시아 사찰을 위한 긴급지원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탁발이 어려워진 이웃 불교국가 스님들의 발심출가를 지켜주세요' 제하의 캠페인은 올 6월부터 시작돼 이미 2차에 걸쳐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사찰 9곳에 대한 긴급지원이 완료됐다.

전국비구니회와 로터스월드는 날로 악화되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캠페인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상황과 사찰의 독자적인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시기까지 지속할 방침이다.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지구를 위한 환경문제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녹색사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푸르니청정도량 운동'이 대표적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비닐·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며 빈그릇 운동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를 실천하자는 취지다.

그 일환으로 올 8월 5일부터는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불교기후학교'를 개설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의 '탄소중립시대, 생명살림 사회로의 전환' 주제 강의를 시작으로, 신승철 동국대 철학박사의 '탄소중립에 대한 진단과 사회적 책임',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의 '코로나19와 자원순환'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

대사회적인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비구니 스님들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비구니스님들의 권익향상과 심리지원에 나선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전국비구니회는 최근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상담전화 '또하나의 도반_마음나눔'을 개설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비구니회가 전국의 비구니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비구니 전용상담의 필요성이 요구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각 분야의 전문상담사 스님을 위촉해 진행 중이며, △수행과 사찰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 지원 △수행자로서 연대적 지지와 정서적 공감 △심리적 나눔 및 전문상담 △교육·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정보 제공 △종단 및 기타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상담위원으로는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현정 스님과 부회장 광용 스님, 자문위원 정목 스님, 다르마심리상담센터 대표 효록 스님 등이 활동하고 있다. 02)3411-8105

본각 스님은 "제12대 전국비구니회는 소통과 실천을 지침으로 삼고 비구니승가복지 강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대사회역량 확대, 전국비구니회 내실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선포했다"며 "코로나19에도 비구니 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으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는 만큼,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일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KBS 나눔의집 보도 허위"…법적조치 예고

조계종, 8월 13일 공식입장 발표

사실관계 밝히며 반박 나서
"공익제보자들 일방 주장에
조계종·나눔의집 명예훼손"

공영방송 KBS가 8월 13일 보도한 '나눔의집 의혹 밝혔지만…공익제보자들은 줄소송에 고통' 제하의 뉴스와 관련해, 조계종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조계종은 "KBS 보도는 공익제보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담으면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편향보도"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계종은 8월 13일 조계종 기획실장(대변인) 삼혜 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사실성과 객관성이라는 보도의 원칙을 상실한 편향보도로 조계종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유감의 뜻과 함께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언론중재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종에 따르면 KBS 해당 보도는 사회복지법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을 마치 조계종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혼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조계종을 후원금 유용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하는 등 조계종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 후원금 유용 의혹은 나눔의집 일부 이사 스님들에게 제기된 것으로, 현재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상태다.

심각한 허위사실로 지적된 대목은 보도 중 "공익제보자들이 문제제기 후 줄소송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는 부분이다.

KBS는 해당보도에서 "공익제보자 7명이 지난 1년간 당한 고소는 40건,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보도했지만, 조계종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KBS가 실제 고소고발 현황을 확인하고 보도했는지 의문"이라며 "법인에서 확인한 고소고발은 20여건이며, 현재까지 경찰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2건, 재판 진행 중인 사건 1건"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조계종은 "오히려 나눔의 집 일본인 직원이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일부 공익제보자가 코로나 예방 현수막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책임자의 결제 없이 2000만원 상당의 고액 식대를 무단으로 지출한 건 등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경과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계종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법인에서 무리하게 고소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공익제보자'들의 일방 주장만을 내보낸 KBS의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편향방송"이라며 정정보도와 사과를 촉구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6교구 마곡사 주지에 원경 스님 임명

원행 스님, 8월 19일 임명장
"백범 김구 관련 사업" 당부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에 원경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8월 19일 원경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종단 현안에 대한 관심과 교구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사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앞으로 교구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달라"며 "특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백범 김구(원종 스님) 선생과 관련한 사업들을 살펴 그 업적과 의미가 잘 선양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배려 덕분에 본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원종 스님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잘 협의해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경 스님은 임명장 수여식 이후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백만원력결집불사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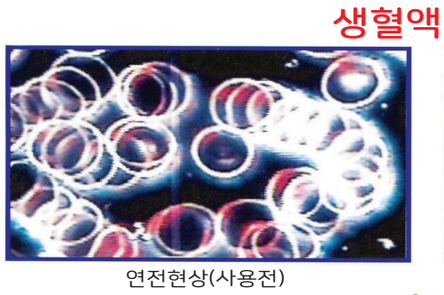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진연 스님을 은사로 1988년 사미계를 수계하고 천안 성불사 주지, 제13~15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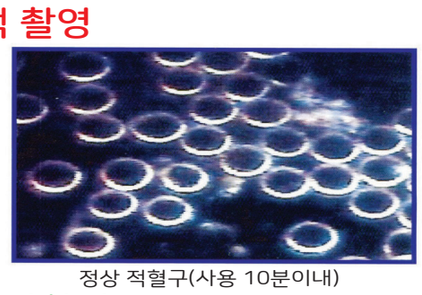
송지희 기자

세정제인 비누가 감기, 몸살,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과 아토피, 다리에 쥐 나는 것, 무좀을 없애주며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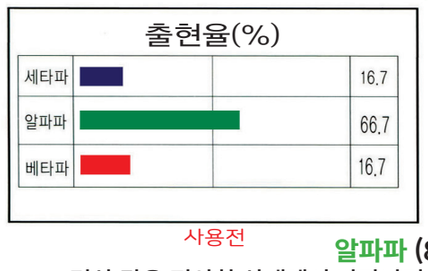
＊＊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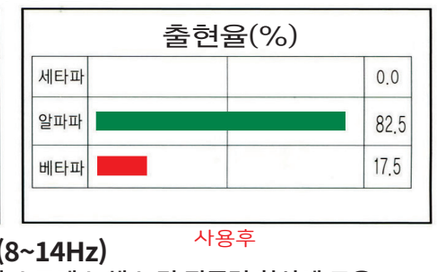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페렴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정균 감소 기능을 지닌 비누

BLOOD MATE®로 전신(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샤워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샤워타월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짜고 털어버린 후 샤워타월에 물기 있는 BLOOD MATE®를 골고루 묻혀준 후 전신을 샤워타월로 마사지하듯 문질러주면 하얀 거품이 5~7분 내에 전신에 스며들어 마르면서 전신이 붉어지며 그대로 옷을 입습니다.

BLOOD MATE®로 샤워 시마다 약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계속하면

◈ 포도상구균 99.9% 정균 감소는 가려움증 등 피부질환을 없애주며, 일부러 때를 밀지 않아도 되며, 발뒤꿈치의 각질이 제거됩니다.
◈ 어깨와 허리, 팔 다리 쑤시고 아프던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머리가 쉽게 희어지지 않습니다.(탈모 예방)
◈ 20~30분 정도 누웠다가 일어나면 사우나 한 것 같이 몸살기 있던 몸의 피로가 풀리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 혈액 정상화(손바닥이 붉어짐) ◈ 피부 보습(촉촉한 느낌)
◈ 젊은 피부로의 환원(매끄럽고 아기 피부 같은 부드러움과 희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향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순비누:120g 12개 3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3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